

殊異傳의 著述者 및 文體考*

曹 壽 鶴

1. 緒 言

中國에서는 7~8세기 경에 傳奇小說이 발생하였고, 우리 나라에서는 8~9세기 경에 <殊異傳>이 발생하였고, 日本에서는 9~10세기경에 모노까다리(物語)文學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東洋三國의 文化發展에 있어서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지극히 당연한 추세이다.

그런데 傳奇와 物語는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고 또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殊異傳>은 몇 편 안되는 逸文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고, 그 逸文에 대한 연구마저도 歪曲되어서 그 文學의 가치와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을 몇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殊異傳>을 거론한 典籍는 22개처이고, 작품이 전하는 것으로는 13편이 있으나 <殊異傳>이란 책은 한 권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을 거의 알 수 없는 점이고, 둘째로는 우리 文化의 근대화 과정에서 학자들이 다투어 西歐化하려고 서두는 바람에 東洋古典에 대한 기초 소양마저도 무시한채 모든 작품들을 서구식 기준에 의하여 측량하는 버릇에 깊이 빠져서 동양 文體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우리 古典에 대한 연구가 그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손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日本人 학자들의 식민지 사관하에서 연구되었고, 또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 학자들이 배양되었던 탓으로 그들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殊異傳>에 관하여는 日本人 史學者 今西龍이 1919년에 藝文第十集 三號에서 <新羅殊異傳及其逸文>이란 글을 발표한 이래 몇모르고 이를 信

*이 논문은 198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집필된 것임.

俸한 국내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그가 밝힌대로 “책은 同一書로 보고 著者に 대해서는 異說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著述者¹⁾是非가 우리 國文學史上에 크나큰 爭占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세가지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古典들을 東洋文體的 視角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殊異傳>은 <春香傳>이나 <洪吉童傳>과 같은 一回性的인 個別傳이 아니라, 이는 <滑稽傳>이나 <儒林傳>, <孝婦烈女傳> 및 <高僧傳>과 같은 多回性的인 類別傳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 지금까지의 著述者에 관한 是非는 처음부터 무의미한 空論이었음을 立言하고자 한다.

Ⅱ. 殊異傳의 典據

<殊異傳>은 不幸하게도 中國의 傳奇小說이나 日本의 物語처럼 많은 작품이 남아 있지 않다. 여러 古典에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殊異傳>이란 單行本만도 4책 정도는 확실히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지만 오늘날 전해진 것은 한 책도 없다. 다만 여기저기 흩어진 전거들을 찾아서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海東高僧傳

고려 고종 2년(1215), 왕명에 의하여 釋覺訓이 撰한 <海東高僧傳> 流通一之一 釋阿道 條, 後半部 첫머리에는 “若按 朴寅亮 殊異傳云云” 하고서 前

1) <殊異傳>의 著述者에 대하여는 종래 撰者, 著者, 編著者, 作者 등 여러가지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이를 창작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러책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양자를 혼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 생각된다. 지금 남아 있는 逸文들을 살펴보면 <崔致遠>같은 작품은 완전히 創作된 것이고 <首插石柁>이나 <心火繞塔>등은 街巷之說을 글로 옮긴 듯하며, 기타 전설이나 野談 등, 기왕의 기록들을 潤文 轉寫한 흔적이 있으므로 作과 述을 합친 뜻에서 著述者라 하였음.

半部의 내용과 다른, 阿道에 대한 기록이 있고, 同書 釋法空 條에서는 法興王이 朴厭觸(異次頓)의 殺身異跡에 힘입어 신라에 불교를 공행하게 된 내력을 國史와 古傳을 참작하여 저술하고, 이어서 興輪寺 창건과 寺婢에 관한 기록을 한 끝에 “今按國史及殊異傳 分立二傳……”라고 기록되어 있다.

法空 條의 〈殊異傳〉에는 ‘古本’이라든가 ‘新羅’와 같은 관형어나 ‘朴寅亮’ 또는 ‘崔致遠’과 같은 人名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殊異傳〉을 말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개 한문 문장에 있어서는 앞에서 한 번 나온 말을 뒤에서 약칭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것도 朴寅亮〈殊異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三國遺事

고려 충렬왕 때 釋一然(1206~1289)이 撰述한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第五 〈圓光西學〉條, 첫머리에는 〈唐續高僧傳〉 第十三卷所載 〈圓光法師傳〉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다음에는 東京 安逸戶長 貞孝家에 있는 古本〈殊異傳〉에 실려 있는 〈圓光法師傳〉을 역시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또 〈三國史記 列傳〉所載, 圓光法師의 世俗五戒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고, 그 끝에는

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薛 出家之東西 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 然彼諸傳記 皆無鵲岬瑠目與雲門之事 而鄉人金陟明 謬以街巷之說 潤文作光師傳 濫記雲文開山祖寶壤師之事迹 合爲一傳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因辨於此 不加減一字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彼諸傳記’ 즉 〈唐續高僧傳〉의 〈圓光法師傳〉에도, 또 古本〈殊異傳〉²⁾의 〈圓光法師傳〉에도 鵲岬瑠目과 雲門山開山祖인 寶壤師의 事迹에 관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鄉人 金陟明이 그릇되게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를 부퍼서 〈圓光法師傳〉에다 제멋대로 섞어서 하나의 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2) 古本〈殊異傳〉이나 新羅〈殊異傳〉 등의 ‘古本’이나 ‘新羅’는 原冊名이 아니고, 後人이 편의상 붙인 말이라 생각되므로, 冊名에서 제외하는 뜻에서 〈 〉밖으로 처리 하였음.

그리고 同書〈寶壤梨木〉條 끝에는 역시 같은 내용의 기록을 하였다.

爾後人改作新羅異傳 濫記鵲塔瑠目之事于圓光傳中 系犬城事於毗虛傳 既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以潤文

이상〈圓光西學〉條와〈寶壤梨木〉條의〈殊異傳〉에 관한 기록 가운데에서 몇가지 정리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古本〈殊異傳〉의 著述者名은, 金一然이〈三國遺事, 圓光西學〉을 쓰기 위하여 참고할 당시에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著述者를 밝힌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것은 東京 按逸戶長 貞孝家까지 밝히면서 著述者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金一然의 태도로 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圓光西學〉條의 '古本殊異傳'과〈寶壤梨木〉條의 '新羅異傳'은 同一本이다. 〈圓光西學〉條에서 鄉人 金陟明이 "그릇되게 街巷之說을 부퍼서〈光師傳〉을 지으면서, 雲門開山祖 寶壤師之事述을 합쳐서 一傳을 만든 台本은 古本〈殊異傳〉이요, 또〈寶壤梨木〉條에서 後人이 改作하여 제멋대로 鵲塔瑠目之事를 圓光傳中에 濫記한 台本이 또한 新羅異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陟明과 後人은 같은 사람이다.

3) 新羅異傳은 新羅殊異傳의 略稱으로 본다.³⁾ 따라서 古本殊異傳도 新羅殊異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新羅殊異傳은〈大東韻府群玉〉에서 말한 崔致遠의 新羅殊異傳과는 다르다. 그 이전의 新羅殊異傳으로 봐야 한다. 崔致遠의 著述이 될 수 없는 이유는 1)에서 言及하였고, 그 이전으로 추단되는 이유는 中國의 傳奇小說 발생과, 日本의 物語 발생과 비교해 볼 때 金大問의〈鷄林雜傳〉이나 薛聰의〈花王戒〉등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金一然의 '古本'이란 말과도 상응한다.

4) 〈圓光西學〉條의 鵲岬와〈寶壤梨木〉條의 鵲塔은 同一場所에서 이루어진 同一事件에 대한 異稱으로 본다. 鵲岬은 까치가 쪼아대던 곳을 지칭한 것이요, 鵲塔은 그곳에서 무수한 벽돌을 파내고, 그것으로써 다시 塔을 쌓았

3) 이와 같은 略稱의 例는〈三國遺事〉에서 흔히 쓰고 있다.〈海東高僧傳〉을〈海東僧傳〉으로,〈圓光法師傳〉을〈光師傳〉으로, 高句麗를 고려로 쓰는 등 例가 많다.

기 때문에 생긴 말임을 알 수 있다.

5) 金陟明이 濫記하여 改作한 것은 改作 新羅〈殊異傳〉 또는 金陟明〈殊異傳〉등으로 호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金陟明의 新羅〈殊異傳〉에는 〈毗虛傳〉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圓光西學〉條의 ‘後撰 海東僧傳’과 〈寶壤梨木〉條의 ‘又作 海東僧傳’은 같은 책이며, 이는 覺訓의 〈海東高僧傳〉임을 알 수 있다. 〈海東高僧傳〉流通一之二的 〈圓光〉條에는 金一然이 지적한 鵲塔瑠目之事와 雲門開山祖 寶壤師之事迹이 合爲一傳으로 되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金大問의 〈高僧傳〉과는 시대적으로도 관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三國遺事〉에는 撰者가 직접 〈殊異傳〉을 言及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책에서 〈殊異傳〉을 引用하였다는 작품과 같은 내용으로 된 작품이 많이 있다. 〈延烏郎 細烏女〉는 〈筆苑雜記〉에서, 〈脫解王〉은 〈三國史節要〉에서, 〈善德王 知幾三事〉도 〈三國史節要〉에서, 〈阿道基羅〉는 〈海東高僧傳〉에서, 〈原宗興法 厭觸滅身〉 및 〈法王禁殺〉도 〈海東高僧傳 釋法空〉條에서, 〈敏藏寺〉는 〈太平通載 寶開〉에서, 〈金現感虎〉는 〈大東韻府群玉 虎願〉에서 각각 그 出典이 〈殊異傳〉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책의 내용 성격으로 볼 때 〈三國遺事〉는 거의 全篇이 殊異性으로 이루어진 책이라 할 수 있다.

3. 帝王韻紀

李承休(1224~1301)의 〈帝王韻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并序에서 謹據國史 旁採各本紀 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已來 經傳子史 去弊辭 取正理 張其事而詠之……

라 하였으니 〈帝王韻紀〉는 國史를 근거로 各國의 本紀와 〈殊異傳〉所載의 내용을 곁들였음을 알 수 있다.

4. 筆苑雜紀

徐居正(1420~1488)의 〈筆苑雜紀〉卷二에는 제목도 없이

日本國大內殿 以其先世 出自我國 向慕之誠 異於尋常 予嘗遍考前史 未知出

處 但新羅殊異傳云 東海濱有人 夫曰迎烏 妻曰細烏……

라 하여 글자만 몇자 줄여서 叙述하고 끝부분에서 首尾相應하게 「我國人之爲王於日本者 止此耳 但未知其說之是非也 大內之先 恐或出此」로 마무리 하였다.

5. 太平通載

成任(1417~1480)의 <太平通載>⁴⁾ 卷 68 <崔致遠>條에는 崔致遠 을 主人公으로 하는, 완전히 傳奇小說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실려있고 그 끝에는 '出新羅殊異傳'이란 細註가 붙어있다.⁵⁾ 同書 卷20에 실려있는 <寶開>條에도 역시 新羅<殊異傳>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있음⁶⁾

6. 三國史節要

盧思愼(1427~1488), 徐居正 등이 世祖의 命에 의하여 編撰하여 成宗朝에 완성한 編年體 史書이다. 이 책에 나타난 <殊異傳>의 간영을 살펴보면,

1) ……臣等本乏三長之才 何能仰稱睿旨 第取舊史及史略 兼採遺事殊異傳 作長編……

라 하였으니, <帝王韻紀>에서 “각국의 <本紀>와 <殊異傳>에 실린 자료들을 旁採하고……”라고 한 것과 비슷하게 “<三國遺事>와 <殊異傳>을 兼採한다”고 하였다. 굳이 語義를 따진다면 旁採는 副次的인데 비하여 兼採는 並立한 一次의인 뜻을 가진다. 실제로 <三國史 節要>에는 <帝王韻紀>에 비하여 <殊異傳>을 明示的으로 引用한 부분이 많다.

2) 同書 卷二 <脫解王>條의 本文에 이어서 脫解王의 由來說話 두 가지를 인용하고 있다. 먼저 <三國遺事>의 由來說話를 인용하고, 다음으로 <殊異傳>

4) 成宗, 23(1492)년 李克墩이 慶尚道觀察使 때에 刊行.

5) 李仁榮: <太平通載殘卷小考>란 제목으로 <震檀學報> 12卷에 발표함(1940.6.原稿)

6) 崔康賢: <新羅殊異傳小考>와 池浚模의 <新羅殊異傳研究>에서 再引用함.

의 由來說話를 인용하고 있다.

3) 同書 卷八에서는 善德女王이 唐나라에서 보내온 牡丹花의 그림과 씨앗을 보고 미리 香氣가 없는 꽃임을 알아낸 내용을 本文에 기록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殊異傳〉의 내용도 함께 引用文形式으로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同書 卷二 新羅阿達羅王 四年 條에서 〈三國遺事〉를 引用한 〈迎烏細烏夫妻〉 이야기는 前示 4, 〈筆苑雜紀〉에서 ‘但新羅殊異傳云……’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殊異傳〉을 인용했다는 말은 없다.

7. 大東韻府群玉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 纂輯書籍目錄 本國諸書條에 ‘新羅殊異傳 崔致遠’라고 明示하였고, 本文의 내용 가운데는 〈殊異傳〉 또는 新羅 〈殊異傳〉이라 出典을 밝힌 작품이 다음과 같다.

卷之八 〈首挿石柎〉, 卷之九 〈竹筒美女〉, 卷之十二 〈老翁化狗〉, 卷之十五 〈仙女紅袋〉, 여기서는 特히 出典을 新羅 〈殊異傳〉이라 하고, 내용은 〈太平通載〉에 실린 〈崔致遠〉 이야기를 축소 요약 하였다. 그리고 卷之十五의 〈虎願〉은 〈三國遺事〉의 〈金現感虎〉 이야기를 역시 요약하였다. 그리고 卷之二十 〈心火繞塔〉등이 있다.

이들 6편의 이야기들은 〈仙女紅袋〉나 〈虎願〉만이 요약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4편도 모두 요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殊異傳〉의 原文에서는 상당히 長文으로 된 傳奇小說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首挿石柎〉과 〈心火繞塔〉 등은 男女의 愛情葛藤을 可視的으로 다룬 훌륭한 傳奇小說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8. 其他 典據

- 1) 金佺, 〈仁祖朝〉의 〈海東文獻總錄〉目錄에 ‘新羅殊異傳 崔致遠’이라 함.
- 2) 洪鳳漢(1713~1778)의 〈東國文獻備考〉 卷246 芸五 雜篇類에 ‘新羅殊異傳 文昌侯崔致遠撰’이라 하였음.
- 3) 李德懋(1741~1793) 〈靑莊館全書〉 卷之五十四 央葉記一 〈東國史〉條에 ‘新羅殊異傳 崔致遠著’라 하였음.

4) 朴容大(1849~?)의 <增補文獻備考>에도 前條와 같은 기록이 있음. 여기 1), 2), 3), 4)는 모두가 목록만 전하고 내용이 전하지 않은 것으로 이 시기에는 이미 <殊異傳>은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재까지 알려진 <殊異傳>의 存在를 알리는 典據는 11책 22개처이며, 추정되는 別本은⁷⁾ 4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異本 또는 同一本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첫째 <三國遺事, 圓光西學>條에서 引用한 東京 安逸戶長 貞孝家에 있었던 古本<殊異傳>과 同書 <寶壤梨木>條에서 말한 後人(金陟明)이 改作할 때 台本으로 삼은 新羅<殊異傳>은 同一本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鄉人 金陟明이 濫記하여 改作한 <殊異傳>은 古本<殊異傳>을 <圓光法師傳>처럼 全面的으로 改作 또는 轉寫했다면 異本이 되는 것이고, 古本<殊異傳>의 一部分만 改作收容하고 나머지 부분은 古本에 누락된 이야기와 그후에 새로 발생한 事件들을 주로 수집 보충하였다면 이는 또 하나의 독립된 別本<殊異傳>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金陟明의 <殊異傳>이 異本인지 別本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는 金陟明이 비록 鄉人이라 할지라도 漢文의 造詣는 상당하였을 것인 즉 古本<殊異傳>의 改作 또는 轉寫하는 작업만 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金陟明 나름대로 견문한 이야기와 古本에 누락된 이야기들을 실기 위하여 새로운 책을 著述하는 것이 학자의 상식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까지는 일단 別本으로 간주하고 이를 金陟明<殊異傳>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세째 朴寅亮<殊異傳>도 別本<殊異傳>이라 생각된다. 비록 覺訓의 <海東高僧傳> 流通一之一 <釋阿道>條에서 인용한 朴寅亮<殊異傳>의 내용이 韓 奈麻 金用行的 阿道碑文과 거의 一致한다고 朴寅亮<殊異傳>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⁸⁾ 원래 傳文體는 史書에서 발생하였고 모든 傳體의 형식은 <史記 列傳>의 형식을 취하는 법이다. 그리고 史書의 編撰은 본래

7) 別本이란 後述하는 바 類別傳의 성질상 비록 책명은 같아 할지라도 著者에 따라 수록하는 작품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예시하면 金大問의 <高僧傳>과 覺訓의 <海東高僧傳>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 자료를 주로 碑·誌·傳·狀類에서 수집하여 史書를 엮는 법이다. 〈殊異傳〉은 비록 일반 傳類와는 약간 달라서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모은 傳이기는 하지만 史傳에 準하는 類別傳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金用行이 지은 阿道碑文과 거의 같다고 해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내용에는 各〈殊異傳〉마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殊異傳〉의 속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자는 〈舊三國史記〉와 金富軾의 〈三國史記〉와의 관계나, 김천택의 〈靑丘永言〉과 金壽長의 〈海東歌謠〉 및 朴孝寬·安玟英의 〈歌曲源流〉 등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후술하는 日人 史學者 今西龍이 1919년에 〈新羅殊異傳及其逸文〉에서 〈三國史記, 崔致遠傳〉에도 〈高麗史 朴寅亮傳〉에도 〈殊異傳〉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음을 의심쩍어한 이래 국내의 학자들도 각자 자기의 주장에 따라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閔漬의 奉勅撰인 〈普覺國尊 碑銘並序〉에서 一然의 著書와 編修한 서적을 8종에 79권의 책명을 열거한 가운데 〈三國遺事〉에 관하여는 一言隻句도 말하지 않았으나 오늘날 아무도 金一然이 〈三國遺事〉를 편찬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책이 분명히 남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책은 전하지 않지만 崔致遠 〈殊異傳〉이나 朴寅亮 〈殊異傳〉의 사실여부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覺訓이 〈海東高僧傳〉에서 ‘若按朴寅亮殊異傳’이란 기록을 부정할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朴寅亮이 釋阿道傳을 지으면서 金用行의 阿道碑文을 引用한 것은 표절이¹⁰⁾ 아니라 가장 사실에 충실한 傳을 짓는 方法이며 覺訓이 〈海東高僧傳, 釋阿道傳〉에서 朴寅亮 〈殊異傳〉을 引用한 것은 事實無根의 虛僞捏造가¹¹⁾ 아니라 史傳을 撰述하는 태도에 있어서 독단과 편견을 피하고 典據를 존중하는 方法이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朴寅亮과 같은 大家가 남의 〈殊異傳〉을 표절 또는 轉寫한 異本을 지을리가 없으므로 朴寅亮 〈殊異傳〉도 하나의 독자적인 別本으로 추단된다.

8) 9) 10) 崔康賢: 같은 책 1962년〈국어국문학〉 제25호, pp.147~163. 같은 책 26호 pp.343~360.

그리고, 朴寅亮은 고려 제11대 文宗即位年(1047)~제15대 肅宗元年(1096) 사이의 학자 겸 정치가이므로 그의 <殊異傳>이 내용은 비록 신라시대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新羅<殊異傳>이라 하기보다는 高麗<殊異傳>이라 하는 것이 구분하기에 편리하리라 생각된다.

네째 權文海가 <大東韻府群玉> 纂輯書籍目錄 本國諸書 條에서 明記한 '新羅殊異傳 崔致遠'을 비롯하여 <海東文獻總錄>과 <東國文獻備考> 및 <增補文獻備考>등의 '新羅殊異傳 文昌侯崔致遠 撰'이란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大東韻府群玉>에 실려 있는 6편의 <殊異傳>인용 이야기는 모두가 신라시대의 이야기이며 著述者 또한 崔致遠으로 되어 있으니 책명도 '新羅殊異傳'이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6편의 이야기 중에서 <仙女紅袋> 1편은 崔致遠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今西龍을 비롯하여 李仁榮 이후 많은 학자들의 논란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¹¹⁾

이로 인하여 대개의 학자들이 崔致遠<殊異傳>說을 全面否定하고 朴寅亮<殊異傳>說을 좃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바, 일응 설득력이 있는 논리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新羅殊異傳 崔致遠'이란 기록은 개별작품의 著述者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纂輯書籍目錄에서 著述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관과하고 있다. <殊異傳>이란 類別傳이고 類別傳은 著述者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6편의 <殊異傳> 이야기 중에는 古本<殊異傳>이나 崔致遠<殊異傳>, 朴寅亮<殊異傳>, 金陟明<殊異傳> 등 그 어느것도 있을수 있지만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崔致遠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물론 <仙女紅袋>는 金陟明이나 朴寅亮의 作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무리 纂輯書籍目錄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하더라도 2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에서 여러 만건도 넘는 세목들의 찬집서적목록을 著者別로 다 열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11) 특히 今西龍은 <新羅殊異傳及其逸文>(1919)에서 "이책을 崔氏의 著로 믿는 後人が 韻玉의 撰者가 原文에 予라고 되어 있는 것을 崔로 改訂할 수도 있다는 事實을 無視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不可하다"고 하였는데 이말은 當時 漢文의 傳文體에서는 一人稱을 쓸 수 없다는 原則을 모르고 있는 견해이므로 참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殊異傳〉처럼 많은 別本과 異本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不確實한 현상에서 板本으로 전하는 기록을 臆測을 가지고 부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大東韻府群玉〉 纂輯目錄에서 '新羅殊異傳 崔致遠'이란 기록은 6편의 작품을 대표한 書籍目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崔致遠 新羅〈殊異傳〉은 독자적인 〈殊異傳〉의 別本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金休의 〈海東文獻總錄〉과 洪鳳漢의 〈海東文獻備考〉와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와 朴容大의 〈增補文獻備考〉 등에서 '新羅殊異傳 崔致遠撰'이라 기록한 것은 〈大東韻府群玉〉의 목록만을 轉寫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異本이나 別本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된다.

다섯째 이상의 논거에서 적어도 저술자의 이름을 달리하는 〈殊異傳〉은 異本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술자의 견문에 따라서 보충해야 할 누락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시대의 경과에 따라서 추가해야만 할 새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別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저술자의 〈殊異傳〉을 轉寫하여 傳播하는 과정에서 많은 異本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며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다섯가지 견해의 바탕은 후술하는 〈殊異傳〉의 類別傳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殊異傳〉의 類別性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국학계에서 쟁점이 되어온 著述者에 대한 是非가 얼마나 무의미한 정력의 낭비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근원은 日本人 史學者 今西龍에게 있으나 今西龍의 迷惑을 탈피하지 못한 원인은 모든 학자들이 東洋의 古典을 연구함에 있어서 西歐式 잣대만 가지고 측량한 탓이라 생각된다. 漢文의 文體概念에 먼저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Ⅲ. 著述者에 대한 異說

上述한 〈殊異傳〉의 典據1~8까지를 근거로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今西龍의 이른바 “이를 同名異書로 인정하기보다는 同一書로 인정하고, 또 著者에 崔·朴 兩說이 있으니 著者에 있어서만은 異說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詭說에 眩惑되어 근 70년간을 헤어나지 못하고, 논쟁을 벌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그동안 〈殊異傳〉의 著述者를 두고 엇갈린 견해들을 정리하여 보면 대략 5개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崔致遠 新羅殊異傳 說

崔南善, 金台俊, 金思燁, 徐首生 등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분들의 견해이다. 그중 대표적인 金思燁의 논리를 살펴 보기로 한다.

……殊異傳의 作者를 朴寅亮이라고 할 것은 一考를 要할 問題다. 逸文의 大部分이 收錄되어 있는 것은 大東韻府群玉인데, 이는 李朝 明宗朝 學者 草澗 權文海의 編著이거나 朝鮮 光文會版을 보면 第一卷 初頭 “大東韻府群玉纂輯 書籍 本國 諸書 條에 “新羅殊異傳”이 있고 著者는 崔致遠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該著內에 收錄된 新羅殊異傳의 著者는 朴寅亮이가 아니고 崔致遠일 것이며, 또 筆苑雜記 卷二에 收錄된 “延鳥郎細鳥郎(女字의 잘못)”은 “新羅殊異傳云 東海濱有人 夫曰迎鳥 妻曰細鳥 一日迎鳴(鳥字의 잘못)採藻海濱云云”의 新羅殊異傳도 著者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崔致遠일 것이다. 우리 古文獻이 壬亂에 많은 盜難 또는 烏有에 歸하였으니 아마 李朝 壬亂前까지는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이 傳했는 듯하며 權文海의 記錄에 誤寫가 없다면 殊異傳(原名 新羅殊異傳)은 朴寅亮이가 아니고 崔致遠이다. 或은 崔致遠의 新羅殊異傳을 模倣한 殊異傳이 朴寅亮에 依해서 著作되어 海東高僧傳에 引用되었는지 모르나……¹²⁾

그리고 崔南善은

〈殊異傳〉의 撰者에 대하여는 예에 전하는 바 없으며, 權文海의 〈大東韻玉〉에 崔致遠으로 擬하기도 하였으며 高麗 覺訓의 〈海東高僧傳〉에 朴寅亮의 〈殊異傳〉을 인용한 것이 있으니 어느것이 옳은지 모르며 설사 朴氏의 撰이라 할지라도 그 本한 바 新羅에 있음은 의심 없을 바이다¹³⁾

12) 金思燁〈國文學史〉, 正音社, 1954.8.19, 刊行, p.221.

13) 崔南善〈新訂 三國遺事〉附錄〈新羅殊異傳 附 新羅古事 逸文〉……〈六堂 崔南善 全集〉8.

이와 같이 六堂은 “新羅殊異傳 崔致遠”을 原本으로 보고 〈海東高僧傳〉의 “朴寅亮 殊異傳”을 異本처럼 생각한 듯하다. 徐首生은 위의 두 학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듯하며, 金台俊은 그의 〈朝鮮小說史〉 第二篇 第二章 三國說話와 殘存文獻條에서 “崔致遠 著 新羅〈殊異傳〉만 말하고 朴寅亮〈殊異傳〉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

2. 朴寅亮 殊異傳 說

이 說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學者는 李仁榮을 비롯하여 金甲福, 趙潤濟, 張德順, 金東旭, 李京雨, 車溶柱 등 제씨로서 비교적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동조를 얻고 있는 학설이다.¹⁴⁾ 이 학설은 李仁榮이 〈太平通載殘卷小考〉라는 논문에서 밝혔으므로, 그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첫째로 殊異傳의 著者에 대하여 考察해 보자. 太平通載殘卷六十八에는 本小稿 끝에 附載한 것과 같이 崔致遠이라는 條目下에 相當히 기다란 新羅 殊異傳의 逸文이 보이는데 그 內容을 보면 新羅 崔致遠을 모델로 삼은 一種의 說話이다. 이 新羅殊異傳의 逸文이 崔致遠을 모델삼은 長文의 說話인 點에 있어서 新羅殊異傳이 崔致遠 그의 著述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殊異傳의 著者는 누구일까. 여기서 우리는 殊異傳에 관한 現存最古文獻인 覺訓의 海東高僧傳에 「若按朴寅亮殊異傳」云云 이라한 一節에 依하여 殊異傳의 著者는 朴寅亮 그이라고 認定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殊異傳」或은 「古本殊異傳」或은 「新羅殊異傳」이라 하여 諸書에 引用된 그 全部를 모아 가지고 이를 比較檢討해 볼 必要가 있거니와 이를 比較檢討해서 자세히 觀察할 때 — 그 詳細한 說明은 省略하지만 — 거기에는 가장 큰 두 가지 共通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其一은 어떤것이나 다 一種의 靈異說話的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其二는 敘述의 形式이 서로 거진 同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內容의으로나 形式의으로나 서로 共通點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殊異傳」이나 「古本殊異傳」이나 「新羅殊異傳」이나는 다 同一한 殊異傳을 가르침이요 殊異傳이라는 것은(우리朝鮮에 있어서는) 單一

14) 學問의 진리는 수량의 다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種밖에 없었으리라고 보고 싶다.……¹⁵⁾

3. 著者 未知의 眞本과 金陟明 異本 說

前述 “殊異傳의 典據, 2, 三國遺事”에서 言及한 古本 <殊異傳> 또는 新羅 <殊異傳>을 眞本으로 보고, 이를 台本으로하여 改作한 新羅 <殊異傳>을 異本으로 보며, 眞本の 著述者는 未知이나 異本の 述者는 金陟明이라고 주장하는 學說이다.

이 說은 崔康賢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종래의 “新羅殊異傳 崔致遠”說과 ‘朴寅亮 殊異傳’ 說을 三段論法式으로 무리하게 부정한 점이 있으나, <殊異傳>의 著述者에 金陟明이란 人物을 발견한 것은 學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¹⁶⁾

4. 增補改撰 說

이 說은 池俊模에 의하여 주장되고 趙東一의 同조를 받는 學說로 모든 古典의 典據들 가운데 그 어느 한가지도 부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收容하는 態度에 眞實性을 얻고 있다. 池俊模는 동 學說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新羅殊異傳>은 처음 崔致遠이 編著하고 다음 朴寅亮이 增補하고 이어 金陟明이 改撰한 것으로 생각된다.

2) <新羅殊異傳>은 高麗初期까지의 新羅가 素材로 된 說話, 小說의 集成인 것으로 생각된다.

3) <新羅殊異傳>에 오늘날 傳해지는 標題項目은 16뿐이나, 原來는 많은 項目을 가진, 홀지지 않은 卷數의 冊으로 생각된다.

4) <新羅殊異傳>은 壬辰倭亂時에 燒失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⁷⁾

15) 李仁榮 <太平通載殘卷小考>, 1940.6, 稿 <震檀學報> 十二卷, pp.202~208.

16) 崔康賢, 같은 論著.

17) 池俊模 <新羅殊異傳 研究>, 1976.11.<語文學>35호, p.247.

5. 兩存說

이 說은 〈殊異傳〉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국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古典의 기록들을 될수 있는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라 하겠다. 엄격히 말한다면 학설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은 수용태도는 학계에 흔히 있는 것이므로 소개하여 두기로 한다. 이와 같은 수용태도는 李家源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殊異傳, 本書는 崔致遠의 作이다. 逸書로 전치 않는다. 後世에 이르러서 朴寅亮의 「殊異傳」과 구별하기 위하여 「新羅」의 두 글자를 더하여 「新羅殊異傳」이라 이름을 붙인 듯 싶다. 그리하여 徐居正의 「筆苑雜記」 卷二. 權文海(1534~1591)의 「大東韻府群玉」중 「纂輯目錄」,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卷五四 등에 모두 「新羅殊異傳」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⁸⁾

그리고 같은 책 第六章에서는

崔致遠 「殊異傳」 중에 실렸던 「崔致遠」의 한 편이 「太平通載」 중에서 引用 된 것이 있다. 이는 곧 俗稱 「崔孤雲傳」의 濫觴이다.

이를 보아서도 朴氏가 지은 「殊異傳」의 內容이 崔氏의 것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崔氏가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를 主人公으로 登場시킨 小說을 쓰진 못했을 것이다.¹⁹⁾

이상 1~5까지에서 그동안 우리 학계의 異說들을 대략 통람하여 보았다. 그 중에서 비록 이론은 疎略하나 5항에서 李家源의 「兩存說」을 제외 하고는 대개가 日人 史學者 今西龍의 迷惑術에 걸려든 듯하다. 그 중에서 4항, 池俊模의 「增補改撰」 說은 60년간의 積막을 깨뜨리는 듯한 卓見이었으나 역시 今

18)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第五章, 南北思潮의 合流 7, 說話系 小說 ④ 殊異傳, p. 69.

19) 李家源, 같은 책, 第六章, 儒·佛思潮의 交媾(其一), 9 傳奇系의 小說 ① 崔致遠, p. 104.

西龍의 “이것을 同名異書라 認定하기 보다는 同一書라 인정하고……”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다.

1919년에 橫說豎說한 今西龍의 迷惑術이 1세기를 마무리하는 1990년에 접어든 지금까지 우리 학계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그 학설이 과연 어떤 것인지 후학들에게 경계하는 뜻에서 그 全文을 번역, 소개하여 둔다.

新羅殊異傳及其逸文

新羅의 鄉傳野談을 傳하는 것,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만이 世上에 알려진 데 불과한데, 他に「新羅殊異傳」이 있어 그 若干을 傳함은 경사스런 일이다. 이 新羅殊異傳에 있어서는 高麗 高宗王의 初年에 僧 覺訓의 東海高僧傳 釋我道傳에 朴寅亮의 著라고 하여 이를 引用하고, 釋法空傳에도 이를 參考하였고, 忠烈王代 僧 一然의 三國遺事에는 東京 卽 慶州의 安逸戶長 貞孝家에 古本殊異傳이 있다고 하여, 그 書로부터 圓光法師傳을 抄出하였고, 李氏成宗王代의 徐居正은 筆苑雜記에 迎烏細烏夫妻의 日本渡來傳說을 抄出하였고, 宣祖王初年 權文海가 撰한 大東韻玉의 引用書目에는 本書를 引고 崔致遠의 著라는 것을 註記하였고 篇內에는 이를 抄出한 大문이 적지 않다. 權文海가 此書를 봤을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후의 著述家에는 지금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本書를 봤던 흔적은 없다. 但 增補文獻備考 書籍考의 雜纂類中에 本書의 名을 듣고 文昌侯 崔致遠撰이라 기록하였음은 아마도 大東韻玉 引用書目에서 轉載한데 불과할 것이다. 생각하건데 此書는 壬辰亂後에는 傳하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前記諸書, 殊異傳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과연 同一書일 것이냐 혹은 同名異書일 것이냐 判明되지 않으나 其書의 異同을 상고할 수 있는 材料가 남아 있지 않은 오늘의 立場에 있어서 이를 同名異書라 인정하기보다는 同一書로 인정하고, 또 著者에 崔·朴 兩說이 있는 것은 著者에 대해서만은 異說이라 보는 것이 穩當할 것이다. 三國史記의 崔致遠傳·高麗史의 朴寅亮傳 共히 此著가 있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或 朴氏의 撰이라고하는 古今錄의 一篇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古今錄이라는 것이 그 斷片마저 殘存하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何等의 증거될만한 것이 없다. 또 海東高僧傳이 引用한 本書 我道傳의 文은 三國遺事에 抄錄한 新羅人 韓奈麻 金用行이 撰한 我道和尚碑文과 順序가 같고, 다만 文字에 조금 異同이 있는데 不過하여 쌍방 모두 同一文을 抄錄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後의 述作者가 先人의 文을 抄錄하여 自己의 著作中에 收容하는 것은 往往 行하여지는 事實임으로, 여기에서도 殊異傳의 著者가

金氏의 文을 抄錄하여 篇中에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此書를 傳記不明의 金用行의 著라 하기에는 不可한 것이다.

더욱이 大東韻玉에 인용한 이 글의 一節에 崔致遠의 名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此書를 崔씨보다 後人의 著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此書를 崔氏의 著라고 믿는 後人, 例를 들면 韻玉의 撰者가 原文에 予라고 되어 있는 것을 崔로 改訂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不可하다.

本書를 崔·朴 누군가에 畵이 결정하려 한다면, 崔의 이름은 朴보다 높고, 新羅라고 하면 崔를 連想하기 때문에, 朴의 著를 잘못하여 崔에게 돌리는 것은, 崔의 著를 朴에게 잘못 돌리기 보다 사실에 있어서 많을 것이다. 또한 覺訓의 朴說은 古說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이 기록을 따라 朴寅亮의 著라고 하는 것이 穩當할 것이다. 本書는 崔도 아니고 朴도 아닌 別人의 著라고도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此書가 新羅滅亡 後부터 王氏 高麗의 中期頃에 이르는 사이에 述作된 것이라는 사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此書의 逸文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추고하며는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此書는 主로 新羅의 神異한 鄉野傳談을 輯錄한 것이기에 三國遺事 같은 데도 本書에서 採錄한 것이 적지 않을 것 같고, 成任이 撰한 太平通載에 수록한 新羅의 野談도 아마 此書에서 採錄한 것이 있을 것이고, 東國通鑑 같은 데도 이 것을 자료로 삼은 것이 있을 것이다.

成任은 世祖·成宗時代의 文士다. 太平通載에 대하여서는 撰者 成任의 아우 成倪의 備齋叢話에 「伯氏 文安公(成任) 好學志倦 嘗在集賢殿 抄錄太平 廣記五百卷 約爲詳節五十卷 刊行於世 又聚諸書及 廣記詳節 爲太平通載 八十卷」라 하였고, 大東韻玉에 此書를 引用 했겠으나 지금은 湮滅된 것 같다. 通載에 수집한 新羅野談이 殊異傳에서 채록한 것이 되려며는, 韻玉의 撰者가 이것을 그 原本인 殊異傳에서 수록한 것이 맞다고 해야 하겠으나, 韻玉에는 이 注意를 缺한 例가 여러군데 있다.

實로 「新羅殊異傳」은 그 著作의 年代가 三國遺事보다 오래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마도 三國史記보다도 옛것이기때문에 逸文에 의하여 그 책의 내용을 推知할 수 밖에 없는 희귀한 書이다. 지금 左에 大東韻玉에서 이를 채록하여 부기해 둔다.

- (1) 原文 생략 (卷八 首挿石柁)
- (2) 原文 생략 (卷九 竹筒美女)
- (3) 原文 생략 (卷十二 老翁化狗)

- (4) 原文 생략 (卷十五 仙女紅袋)
- (5) 原文 생략 (卷十五 虎顛, 三國遺事 感通篇 金現感虎의 條를 붙것)
- (6) 原文 생략 (卷二十 心火繞搭)

(大正八年三月 藝文 第十年 三號)²⁰⁾

이 今西龍의 견해를 국내 학자들의 著述者에 대한 이설, 1~4까지에 적용시켜 보면 서로 상반되는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무슨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설수설한 未確定 원고를 그의 귀중한 <新羅史研究>에 왜 발표하였는지 그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

IV. 殊異傳의 文體的 屬性

東洋의 古典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題目부터 파악해야 한다. 제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먼저 제목에 나타난 文體(장르)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우리의 古小說의 경우는 위선 記體나 傳體나 구별해야 하고 記體의 경우는 사건 중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春香傳>이나 <沈清傳>과 같이 傳體小說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勸善懲惡의 主題라고 大書特筆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傳이란 文體는 본래 勸善懲惡을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文體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난센스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傳體가 小說化하는 과정에서 점차 文體性이 흐려지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제목의 語意에서 대개 그 내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니, 가령 <李生窺牆傳>의 경우 '窺牆'이란 제목 파악에 유의한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記體의 경우는 志·錄·夢 등으로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러하여 傳體의 경우는 그것이 類別傳인가 아니면 個別傳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類別傳이란 대개 어떤, 같은 類 概念을 나타내는 대상이 있는 것이

20) 今西龍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70, pp.589~595 所載.

요, 個別傳이란 대개의 경우 固有名詞로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類別傳의 경우는 개념을 파악해야하고 個別傳의 경우는 먼저 男女의 性別을 구별해야 하고, 男性인 경우는 대개 社會의 正義實現이나 理想의 實現등에 관한 것이 많고, 女性의 경우는 대개 애정관계가 많은데, 쓰여지는 글자는 대개 香·月·春·蘭·梅·桂·玉·珠와 같은 情感이 짙은 글자가 많이 쓰여진다. 그러나 三綱五倫과 같은 基本的인 道德에 관한 경우에는 男女性別과는 관계가 없다. 또 寓意나 諷刺의 경우도 性別과는 관계가 없으나 이 경우는 語意를 잘 파악해야 한다. 가령 〈烏有蘭傳〉을 연구함에 있어서 위선 제목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를 '烏有蘭'으로 파악한다면 이 작품의 올바른 연구는 不可能하게 된다. 이를 '烏有蘭'으로 파악한다면 이 小說의 諷刺性은 이미 80% 파악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漢文에서 "烏有·非有·子虛·無是·無何·烏叟" 등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미 寓意를 위한 用語로 熟知된 것이기 때문이다.

類別傳도 身分에 따른 것, 직업에 따른 것, 宗教, 思想 기타 내용 성격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리고 같은 類에 속하는 傳이라 하더라도 제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같은 〈滑稽傳〉이라 하더라도 太平閑話란 관형어가 붙은 徐居正의 〈滑稽傳〉과 관형어가 붙지 않은 〈史記〉의 〈滑稽傳〉은 思考를 혼란시키는 심리적 작용에는 공통성이 있으나 그 역사적 意義는 매우 다르다. 그리고 類別傳과 個別傳의 가장 큰 차이는 前者는 多回性인데 비하여 後者는 一回性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례를 史書를 中心으로 表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書名	區分	類別傳						
		伯夷	呂不韋	佞幸	良(循)吏	儒林	酷吏	貨植
史記								
漢書		×	×	○	○	○	○	○
舊唐書		×	×	×	○	○	○	×
元史		×	×	×	○	○	×	×
高麗史		×	×	○	○	×	○	×
三國史記		×	×	×	×	×	×	×

위 表에서 個別傳의 一回性和 類別傳의 多回性を 살펴보았다. 個別傳의 실례로 伯夷傳과 呂不韋傳을 들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실존 人物이므로 그의 傳을 지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짓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제3자가 伯夷傳이나 呂不韋傳을 지을 수는 있지만 類別列傳처럼 <史記>에 실린 것을 <漢書>나 <唐書>, <宋史> 등에 거듭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類別傳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倭幸, 良吏, 儒林, 酷吏, 貨殖 등은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의 傳인 것이다. 다만 역사를 담당하는 史官의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史書가 바뀔 적마다 있는 수도 있고 없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個別傳이 문예적인 창작의 경우에는 一回性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그것은 곧 표절이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殊異傳>을 마치 문예 창작상의 個別傳인 줄 착각하여왔다. 특히 朴寅亮 <殊異傳>을 고집하는 사람, 崔致遠 新羅 <殊異傳>을 고집하는 사람 및 金陟明 <殊異傳>을 고집하고, 朴寅亮 <殊異傳>을 事實無根의 虛偽捏造로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착각되었던 것이다.

<殊異傳>의 '殊異'란 語意는 倭幸, 儒林, 酷吏처럼 어떤 類를 형성하는 概念을 가진 用語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古典들에 여러 사람의 著述者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굳이 한 사람의 것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傳文體에 대한 성격파악에도 문제가 있지만, 日人 史學者 今西龍의 迷惑의인 臆側, 즉 "前記諸書가 殊異傳이라 일컫는 것이 과연 同一書인가, 或은 同名異書일 것인가, 判明되지 않으나 其書의 異同을 상고할 수 있는 材料가 남아 있지 않은 오늘의 입장에 있어서 이를 同名異書라 인정하기보다는 同書로 인정하고, 또 著者에 崔·朴 兩說이 있는 것은 著者에 대해서만은 異說이라 보는 것이 穩當할 것이다."라고 한 말에 상당히 현혹된 듯하다. 상고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왜 同一書로 인정해야 하느냐, 비록 原書는 남아 있지 않아도 다른 고전에 異書의 典據가 있고 <殊異傳> 자체가 類別性的인 傳인데, ……또한 著者에 崔·朴 兩說이 있으면 그것으로 著者가 다른 同名異書임이 증명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著者에 대해서만은 異說로 보는 것이 穩當하나? 상고할 자료가 없을 수록 기왕의 典據에 따라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詭辯을 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古典은 적을수록 그 文化는 낮게 평가될 것이고, 또 著者에만 異說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후세에 論爭의 발단을 위한 端緒를 조작하려는 저의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殊異傳>의 各 別本에 비록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別本이 아니고 同一本이라는 할 수 없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類概念이 상당히 다른 책임이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또한 類概念이 같은 金大問의 <高僧傳>은 비록 책은 전하지 않지만 覺訓의 <海東高僧傳>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別本이 아니고 同一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金大問의 〈高僧傳〉은 原本이고 覺訓의 〈海東高僧傳〉은 僧補 또는 改撰한 〈高僧傳〉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어느것이 眞本이니 異本이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異本の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통하여 여러 책의 〈殊異傳〉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첫째 著述者 不明의 古本 〈殊異傳〉(新羅殊異傳이라고도 함)이 있었고, 둘째 崔致遠이 著述한 新羅 〈殊異傳〉이 있었으며, 셋째 金陟明이 일부 개작한 〈殊異傳〉도 있었으며, 넷째 朴寅亮의 〈殊異傳〉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척명이 신라 〈수이전〉을 일부 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 개작한 〈신라수이전〉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김척명이 고려 사람이요 또 이 책에는 고려의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실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轉寫한 많은 異本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8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傳奇小說이 발달하였고, 우리 나라에서 9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殊異傳이 발생하였고, 日本에 10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모노까라리(物語)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V. 結 言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몇가지로 요약하여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殊異傳〉이란 文化 전달의 公道上 통일신라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中國의 六朝末期 및 唐나라 시대에 성행한 志怪 내지는 傳奇小說을 수용한 우리 나라식의 용어이다. 그것은 7~8세기에 중국의 傳奇小說과, 9~10세기에 일본의 모노까라리(物語)와, 8~9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殊異傳〉이 발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文化발전의 역사적이 추세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이전〉의 전거는 〈海東高僧傳〉을 비롯하여 〈三國遺事〉, 〈帝王韻紀〉, 〈筆苑雜記〉, 〈太平通載〉, 〈大東韻府群玉〉 및 기타 11개 전적의 22개처에 근거하고 그 가운데서 13개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셋째 종래 우리 학계에서 〈수이전〉을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개별 전적 視角과, 그 저자를 崔·朴·金 중의 어떤 한 사람으로 국한하여 고집하였던 것은 日人 사학자 今西龍의 “책은 同一書로 보고 著者에는 異說이 있는 것”이라는 詭說에 현혹되었던 것으로 본다.

세째 〈수이전〉은 〈高僧傳〉이나 〈滑稽傳〉 및 〈英雄傳〉등과 같은 類別傳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古典의 典據에 의하여 〈殊異傳〉의 別本을 살펴보면 ① 著述者를 알 수 없는 古本 〈殊異傳〉(一名 新羅殊異傳)과 ② 崔致遠의 新羅 〈殊異傳〉과 ③ 金陟明이 일부 개작한 〈殊異傳〉과 ④ 朴寅亮의 〈殊異傳〉 등 네편의 別本 〈殊異傳〉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 된다. 그리고 이 밖에 몇가지 異本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네째 〈太平通載〉 殘卷에 남아 있는 〈崔致遠〉은 〈금오신화〉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傳奇小說이며, 〈大東韻玉〉의 〈虎願〉은 〈三國遺事〉의 〈金現感虎〉와 같은 내용인데, 이 〈김현감호〉 역시 전기소설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大東韻玉〉의 〈首插石柙〉과 〈心火繞塔〉 등은 책의 성질상 축약된 抄述이므로, 그 원문은 男女의 애정관계를 다룬 혼란한 〈傳奇小說〉일 것이므로, 우리 古小說의 시초를 15세기 〈금오신화〉설을 조속히 시정하고 이를 9세기 전후의 〈수이전〉으로 정정해야 한다.